‘캠핑 700만 시대’…광양, 취향 저격 아웃도어 핫플 ‘인기’

숲·계곡·바다 품은 힐링 명소 3선
백운산·금천계곡·구봉산야영장 등

광양시는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맞아 대표 아웃도어 공간을 추천했다. 사진은 금천계곡야영장(왼쪽)과 백운산자연휴양림.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맞아 자연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아웃도어 공간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가족·연인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백운산자연휴양림, 금천계곡야영장, 구봉산숲속야영장 등 대표 아웃도어 공간을 추천했다.

이 중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원시림과 식물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박물관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종합숙박동, 카라반, 캐빈하우스, 야영데크, 카라반사이트 등 다양한 숙박시설도 마련돼 있어 취향에 따라 숲캉스와 숲멍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야영장은 취사장 온수 공급, 신축 화장실, 야영 데크 규격 확대 등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면서 캠핑족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백운산 금천계곡 끝자락에 자리한 금천계곡야영장은 청정한 계곡과 맑은 섬진강,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캠핑환경으로 캠핑족의 발길을 끈다.

오토캠핑장 24면, 카라반 3면, 캠텔 2면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관리동을 비롯해 샤워실, 공용취사장, 놀이터 등 편의시설도 두루 갖췄다.

금천계곡에서는 물멍과 물놀이를, 숲이 우거진 다압평촌공원에서는 호젓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운무에 휩싸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지리산 자락과의 눈맞춤도 특별한 감성을 더한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가칭) 내 구봉산숲속야영장은 야영데크 28면, 트리하우스 5동 규모로 웰컴센터, 손수레보관소, 취사대, 무료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탁 트인 광양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오션뷰, 보석상자를 엎질러 놓은 듯한 아름다운 야경, 별밤의 감성은 낭만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취향을 저격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텐트, 테이블, 의자 등이 갖춰진 캠크닉(캠핑+피크닉) 전용 사이트가 마련돼 있어 가볍게 소풍 가는 마음으로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다.

관리동인 웰컴센터에서 커피, 음료, 라면, 햇반 등 캠핑에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하며, 인근 상가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캠핑 인구 700만 시대, 광양은 천혜의 자연과 쾌적한 캠핑 환경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광양의 아웃도어 여행을 통해 힐링과 감성을 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운산자연휴양림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금천계곡야영장과 구봉산숲속야영장은 실시간 예약플랫폼 ‘캠핏’ 또는 전화(010-7930-0071)로 예약할 수 있다. /광양=양홍렬 기자

김성 장흥군수, 폭염·가뭄 예방 ‘총력전’

농어업·축산·임업 분야 집중 관리
현장 근로자 중심 폭염 교육 등

김성 장흥군수가 최근 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응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이 폭염·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4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김성 군수는 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응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최근 폭염특보 발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소집됐다.

회의에 참석한 부군수와 각 부서장은 추진 중인 폭염과 가뭄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피해 예방 대책과 보완할 점에 대해 논의했다.

장흥군은 폭염에 가뭄이 겹친 복합재해를 우려해 농업, 어업, 축산, 임업 분야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8월3일까지 개최할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운영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 마련에도 의견을 나눴다.

김성 군수는 “직원들의 비상근무와 살수차 운영, 마을 방송, 재난 문자 발송 등 예방 활동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며 “이 중에서도 건설사업장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현장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중심 폭염 대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화순, 농업용 저수율 82.2%…공급 이상 無

정상 단계 분류…9월까지 용수 확보

화순군은 14일 “올해 장마 기간이 짧아 강원도와 제주도 등지에서 가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 농업용 저수지는 안정적인 저수율을 유지하며 농업용수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17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82.2%로 평년 대비 97.8%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43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62.7%로 평년 대비 98.3%로 안정적인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 대비 70% 이하일 경우 ‘관심’ 단계, 60%-40% 이하일 경우 각각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화순군은 ‘정상’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향후 3개월간 가뭄 전망은 ‘정상’으로 당분간 큰 비 예보는 없으나 현재 저수율을 고려할 때 9월까지 영농기 용수 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박종옥 건설교통실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뭄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저수지를 점검하고, 단계별 가뭄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관정개발 등 대체수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 성산·여문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내달 17일까지…현장 선착순 이용

여수시는 14일 “8월17일까지 성산공원과 여문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 대상은 이용일 기준 3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로 제한하며, 5세 이하 영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에만 이용 가능하다.

물놀이장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두 차례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무료다. 입장은 현장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오전반에 한해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오전반은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반은 2시부터 5시까지며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시설 정비 시간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정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이 기간에는 저수조 청소와 시설 정비를 진행한다.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도 휴장한다.

최대 이용 인원은 성산공원 400명, 여문공원 150명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오전반 인터넷 예약은 여수시OK통합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이용을 원하는 주의 전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예약은 운영 업체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여수시는 수시 시설물 점검과 수질 관리,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상시 배치 등을 통해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성산공원과 여문공원은 여수시의 대표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올여름 아이들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성 월산·교동마을,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23억 투입

장성군은 14일 “황룡면 월산·교동마을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안전·위생 등 생활여건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30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지역 가운데 지은 지 30년 넘은 주택 비율 40% 이상, 슬레이트 주택 비율 40% 이상인 곳이 사업 대상이다.

월산·교동마을은 단광천 인근 저지대에 위치해 자연재난에 취약하다. 2020년 집중호우 당시에도 마을 전체가 수해를 입은 바 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국비 포함 23억원이 투입된다.

핵심 사업인 ‘재해알림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생활·안전시설 정비(마을안길 재포장, 방범시설 확대, 공용분리수거장 설치) ▲주택 정비(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 공폐가 철거) ▲마을환경 개선(노후담장 정비, 혐오시설 철거)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월산·교동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순천시,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순천시는 14일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무료 교통카드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사업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순천시의 역점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협의와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준비 절차를 마쳤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어르신 약 2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르신 교통카드는 월 15회 한도 내에서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50년 10월 이전 출생자이며 7월 14일부터 8월1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집중 접수를 받는다.

사전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8월 이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75세가 되는 어르신은 해당 월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카드는 최초 발급 시 무료이며 발급된 카드는 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교통정책과(061-749-5906)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기 기자

담양군치매안심센터-담양우체국, 치매안부 서비스 ‘맞손’

등기우편 활용 위기 가구 발굴

담양군치매안심센터와 담양우체국은 “최근 치매 고위험군 가구의 생활안전 확인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안심 복지등기우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활용한 안전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복지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위기 가구 발굴 ▲정기적 안전 확인 ▲공공우편망을 활용한 정보 전달 등이다.

담양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ICT 기반 치매 돌봄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중심의 치매안심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영재 담양우체국장은 “공공 우편서비스가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주호 담양군치매안심센터장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사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